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D-100

우뚝선 습지센터 전체 공정률 90% 마무리만 남았다

한파속 인부 200여명 분주
세계정원 조성도 본격화

9일 오후 순천시 순천만, 2013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4월 20일~10월 20일) 전시장 공사가 한창인 이곳에서 한겨울 추위 속에서도 200여명의 인부들이 마무리 작업을 벌이고 있었다.

박람회장은 56만4000㎡의 주 박람회장과 23만3000㎡의 수목원, 국제습지센터 등으로 꾸며진다. 이색 볼거리가 몰려 있는 주 박람회장은 순천만 호수공원과 도시 숲, 바위정원, 환상정원, 한방체험센터 등이 제 모습을 갖추어 가고 있다.

또 네덜란드·프랑스·중국·영국·태국 등 세계 10개국에 참여한 세계정원도 본격적인 조성에 들어갔다. 호주·인도·캐나다 등 11개국은 실외정원과 실내정원을 꾸민다.

공사가 끝나면 모두 72개의 정원이 순천만 일대에 생겨나게 된다. 박람회장은 전체 36만2863그루의 나무와 잔디 21만8000㎡를 심는 작업도 착착 진행되고 있다.

관람객의 눈과 귀를 사로잡을 문화행사도 다채롭게 펼쳐진다. 박람회장에서 다양한 문화체험을 할 수 있도록 1일 35회, 총 6495회의 공연, 체험, 전시 등의 문화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순천만정원박람회 조직위 관계자는 "국제습지센터를 시작으로 대부분 전시공간과 박람회장의 공사도 조만간 속속 마무리될 것"이라면서 "현재 공정률은 90%에 달하며, 공사현

장의 쓰레기를 치우고 꽃을 심는 마무리 작업만 남았다"고 설명했다.

개막이 다가오면서 박람회 관련 관심도 집중되고 있다. 이번 박람회는 '지구의 정원, 순천만(Garden of the Earth)'을 주제로 세계적 생태습지인 순천만과 풍덕동 일원 박람회장 등 111만2000㎡(33만6300여 평) 부지에서 열린다.

박람회장은 56만4000㎡의 주 박람회장과 23만3000㎡의 수목원, 국제습지센터 등으로 꾸며진다. 이색 볼거리가 몰려 있는 주 박람회장은 순천만 호수공원과 도시 숲, 바위정원, 환상정원, 한방체험센터 등이 제 모습을 갖추어 가고 있다.

또 네덜란드·프랑스·중국·영국·태국 등 세계 10개국에 참여한 세계정원도 본격적인 조성에 들어갔다. 호주·인도·캐나다 등 11개국은 실외정원과 실내정원을 꾸민다.

공사가 끝나면 모두 72개의 정원이 순천만 일대에 생겨나게 된다. 박람회장은 전체 36만2863그루의 나무와 잔디 21만8000㎡를 심는 작업도 착착 진행되고 있다.

관람객의 눈과 귀를 사로잡을 문화행사도 다채롭게 펼쳐진다. 박람회장에서 다양한 문화체험을 할 수 있도록 1일 35회, 총 6495회의 공연, 체험, 전시 등의 문화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201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D-100을 하루 앞둔 9일 순천시 풍덕동 박람회장 조성 현장에 전 세계 습지형태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국제습지센터가 완공돼 위용을 드러내고 있다. 박하지 공사가 한창인 박람회장 전체 공정률은 90%에 이르고 있다.

긴급 점검 위기의 광주시립예술단

수장선임 잡음... 공연 대신 갈등

7개단체 한해 126억 예산 불구 공연무대 시민 외면

지난해 12월 대전시향은 체코, 헝가리, 비엔나, 독일 등 4개국 유럽 투어를 다녀왔다. 출연자는 피아니스트 백건우, 수원시향은 창단30주년이었던 지난해 9개 도시 순회연주를 진행했다. 8월에는 수원국제음악제를 개최했고 협연무대에 선 이는 무리 길사함, 미사 마이스키, 신영옥이었다.

반면 단원들의 상임지휘자 '연임 반대' 문제로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광주시향을 바라보는 클래식 팬들은 착잡하다. 여기에 타 단체 예술감독 선정을 둘러싼 잡음까지 불거지면서 시립예술단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시립예술단체의 실태와 문제점, 대안 등을 짚어본다.

광주시립예술단체는 지난해 출범한 시립극단을 합쳐 모두 7개 단체가 활동중이다. 하지만 내년 공연 계획을 확정하고 시민들을 위한 질 좋은 무대를 준비하고 있는 단체는 절반에 불과하다. 단체를 이끌 수장들을 뽑는 과정에서 잇따라 잡음이 터지고 있기 때문이다.

광주시립교향악단의 경우 현 크리

스티안 루드비히의 연임을 단원들이 반대하면서 정상적인 연주가 어려운 상태다. 현재 시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정위원회가 구성돼 20일 전까지만 조정안을 내놓을 예정이지만 효과는 미지수다.

무용단의 경우는 지난해 진행된 예술감독 심사와 관련, 시가 극장 발표를 하면서 '로비설' 등 온갖 설들이 떠돌았다. 결국 7일 현 김유미 단장이 유임이 됐지만 조직을 통솔해야 하는 입장에서는 부담을 안게 됐다.

국악관현악단도 연봉 등의 합의가 끝나지 않아 아직까지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정기평정 공정성 문제로 법정 공방까지 치달은 시향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는 매우 높다. 현 지휘자의 능력 등에 의문을 표하며 단원들의 연임 반대에 동조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단원들의 지휘자 길들이기와 밥그릇 쟁기گیری는 비판도 적지 않다.

단원들의 기량 향상을 표방한 정기평정은 '뜨거운 감자'다. 단원들은 평정 자체를 거부하지는 않지만 이번 교향악단 사태를 예로 들며 예술감독의 권좌적 관정을 제어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부적격자는 과감히 퇴출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시립예술단체들이 내놓은 작품에 대한 시민들의 평가가 그리 높지 않은 점도 문제다. 관객수도 급감하고 있다. 2011년의 경우 288회 공연에, 14만 2000명을 동원했지만 올해는 305회로 공연 횟수가 늘었음에도 관객수는 11만 9000명으로 줄었다. 낮은 봉급 체계와 열악한 환경, 부족한 공연 제작비, 관의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 등이 이유로 거론되기는 하지만, 한해 126억원의 시민 세금을 사용하는 광주시립예술단체들에게 변화가 필요한 것은 분명하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광신대학교
2013년도 제21기
보육교사 교육원 학생모집
원서접수
~2013년 1월 11일(금)
입학문의 062)605-1112
문의 062)605-1023

민주 비대위원장 문희상 추대

5선의 문희상 의원(사진)이 '위기의 민주당'을 이끌어 갈 비상대책위원장에 임명됐다. <관련기사 4면> 9일 민주당은 국회에서 국회의원·당무위원 연설회를 열고 문희상 의원을 만장일치로 추대했다.

문희상 비대위원장은 박기춘 원내대표와 함께 대선 패배의 후유증을 조기에 수습하고 민주당의 쇄신과 변화를 이끌어 가야 할 중책을 맡게 됐다. 이와 함께, 박근혜 정부 출범에 앞서 진행될 총리 및 장관 인사청문회 정국을 진두지휘하는 한편, 오는 3월 발로 전망되고 있는 새로운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를 엄격히 관리해야 한다.

하지만 대선 패배 22일 만에 비대위원장을 선출할 정도로 민주당의 내



부 동력이 취약하고 계파 갈등도 극심한 상황에서 '관리형'인 문 위원장이 당 수습과 쇄신을 성공적으로

견인할 것인지는 미지수다. 당내 주류와 일부 초저선 의원들은 박영선 의원 추대에 나섰다 대선 패배 책임론을 내세운 비주류 의원들의 강한 반대에 부딪혀 무산됐다. 경기 의정부 출신의 5선 의원인 문 위원장은 1980년 '서울의 봄' 때 갑작스런 대통령 진영에 합류, 정치에 입문했으며 민주당 최고위원, 국회 정보위원장, 청와대 비서실장 등을 역임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차당선인 20일께 총리 후보자 발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오는 20일께 국무총리 후보자 인선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9일 자체 워크숍을 위해 마련한 '인수위 운영 개요'에서 박 당선인은 지난 6일 인수위 출범 이후 보름 정도 기간 총리 후보자를 물색해 오는 20일께 총리 후보자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 문건은 역대 인수위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알려져 행안부 예상 일정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당선인 후보자를 지명하고 국회에 인사청문회를 요청하면 국회는 인사청문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을 처리한다. 행안부는 이 일정이 다음달 5일까지 진행될 것으로 내다봤다.

행안부는 또 총리 후보자 청문회 기간 국무위원 후보자에 대한 인선을 진행해 총리 후보자의 추천을 통해 다음달 5일께 발표하며 20일까지 해당 상임위의 인사청문회를 거치는 것으로 일정을 짰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http://mara.kjmedia.co.kr

제48회 광주일보 3.1절 전국마라톤대회

2013. 3. 1 | 금 | 08:30~16:00

플코스 08:30 | 하프코스 08:40 | 아시아문화전당 출발
10km 09:10 | 5km 걷기코스 09:20 | 광주월드컵경기장 출발

- 대회개요**
 - 1. 코스 (출발지2원화)
 - (1) 플, 하프코스 : 아시아문화전당(구, 전남도청)출발 → 승촌보 방향 → 광주월드컵경기장 끝
 - (2) 10km, 5km : 광주월드컵경기장 출발 → 만호초교방향 → 광주월드컵경기장 끝
 - 2. 종 목 : 5km걷기, 10km, 하프코스, 플코스
- 신청 및 접수**
 - 1. 참가자격 : 신체건강한 모든 사람(제한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 2. 접수기간 : 2013년 2월 7일(목)
 - 3. 참가비 : 플·하프 : 10km : 25,000원, 5km : 10,000원
 - 4. 신청방법 : (1) 홈페이지 접수 : http://mara.kjmedia.co.kr (2) 신청서 FAX접수 : 062-222-0195 (3) 방문접수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무등빌딩 16층 광주일보사 문화사육국
- 주요운영안내**
 - 1. 참가자지급품 : 배낭(10km코스이상 참가자 기록집 부착), 완주메달, 기록증(10km코스 이상 완주자), 간식 및 음료, 참가 기념품
 - 2. 개인시상 : 플·하프 : 10km 1~45위 까지 시상 (총시상금 594만원, 총시상품 1,500만원 상당)
 - 3. 특별상 : 원양부부상, 포토제닉상, 행운상
 - 4. 단체참가 특전 : 단체참가팀 지원금 지급 및 특전(상세내역 홈페이지 참조)
 - 5. 원거리 참가자 서버버스운행

| 주 최 | 광주광역시 | 전라남도 | 광주일보 | 주 관 | 광주광역시육상경기연맹·전라남도육상경기연맹 | 문 의 | http://mara.kjmedia.co.kr · 062-220-0541